

# 간호보조원 근무실태 조사



~서울대학 부속병원에서의~

<서울의대 부속병원> 박 명 자

이 조사서는 서울대학병원 13과에서 근무하는 간호보조원들의 매일의 일과를 기록하여 time and motion study를 한 것이다. 방법은 각 과별로 모든 간호보조원들의 근무시간 중 계속해서 작업이 바뀔 때마다 작업의 내용, 작업에 소요된 시간, 작업의 장소를 기록케 하였다.

또한 시간은 낮번이 7AM~6PM  
밤번이 8PM~익일  
8AM 까지이다.

그러나 밤번 간호보조원은 3과 즉 일반외과, 소아과, 산과 뿐이며 일반 외과는 비뇨기과를 소아과는 이비인후과를, 산과는 신생아실을 결해서 근무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외된 과는 정신과, 공급실, 수술장, 회복실과 각과 외래이다.

이 조사서의 목적은 간호보조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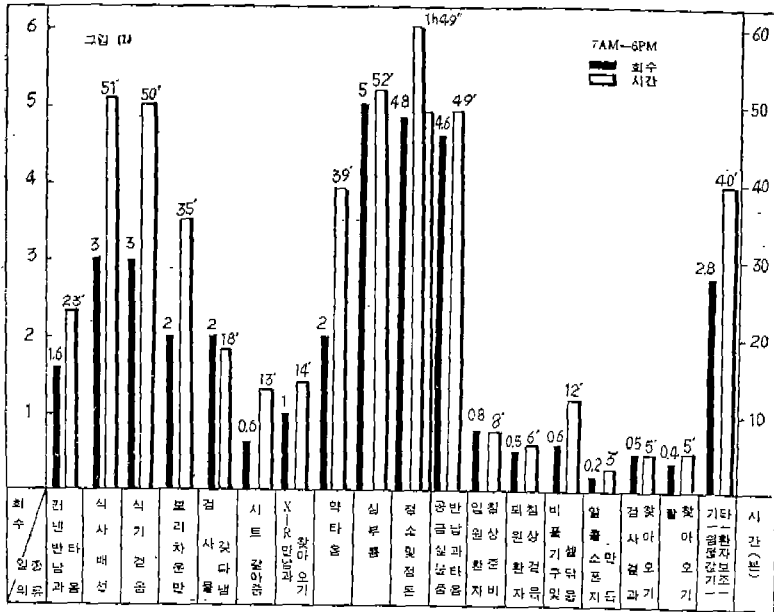
일에 시간을 낭비함이 없이 환자 간호와 병실관리에 좀 더 유효 적절한 시간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 통 계 표

첫째 간호보조원들이 하는 일을 매시간 마다 적어 보았다. 이렇게 하루에 한 일을 하나하나 적어가는 동안 각과에서 동일하게 되풀이 되는 일을 낮번 근무는 매 한시간마다 또 밤번 근무는 매 2시간 마다 일의 회수와 시간을 통계로 내 보았다. 그 결과 낮번과 밤번은 하는 일이 조금씩 달랐으며 매 시간마다 그 시간에 해당하는 일의 특징이 나타났다.

낮번의 통계는 낮번에 가장 많은 일 18가지를 골라서 매 시간마다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낮번의 일은 대부분 18가지 중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낮번 간호보조원의 근무실태 통계표  
(한과에서 1일동안 1일의 횟수와 시간)



<표 1> 전체 일의 회수에 대한 각일의 퍼센트 <낮번 7AM 6PM>

차례	일의종류	%	차례	일의종류	%
1	심부름	14	10	린넨반납과 찾아오기	5
2	청소 및 정돈	13	11	X-ray 반납과 찾아오기	3
3	공업실 물품 반납과 타움	12.7	12	입원환자 침상준비	2.5
4	식사 배선	8	13	린넨 갈아줌	2
5	식기 걸음	8	14	비품기구 및 셀 닦음	2
6	기타 (휴식 환자보조)	7.8	15	퇴원 환자 침상준비	1.4
7	약 타움	6	16	검사 결과 찾아오기	1.4
8	보리차 운반	6	17	병상 일지 찾아오기	1
9	검사물 갖다 널	6	18	알콜 스폰지 만들기	0.7

〈표 2〉 전체 일의 시간에 대한 각일의 퍼센트 <낮번 7AM~6PM〉

차례	일 의 회 수	%	차례	일 의 회 수	%
1	청소 및 정돈	21	10	검사물 갖다냄	3
2	심 부 름	19	11	X-ray 반납과 찾아오기	2.6
3	식 사 배 선	10	12	비품기구 및 셀 닦음	2.2
4	식 기 걸 음	9.4	13	입원 환자 침상 준비	1.8
5	공급실 물품 교환	9	14	퇴원 환자 침상 걸음	1
6	기타(휴식 환자보호)	7.5	15	린넨 갈아줌	26
7	약 타 음	7.5	16	검사 결과 찾아오기	2.8
8	보리차 운반	6.5	17	병상 일지 찾아오기	0.8
9	린넨 반납과 타음	4	18	알콜 스펀지 만들기	0.6

〈표 3〉 낮번 근무중 가장 많은 일의 일회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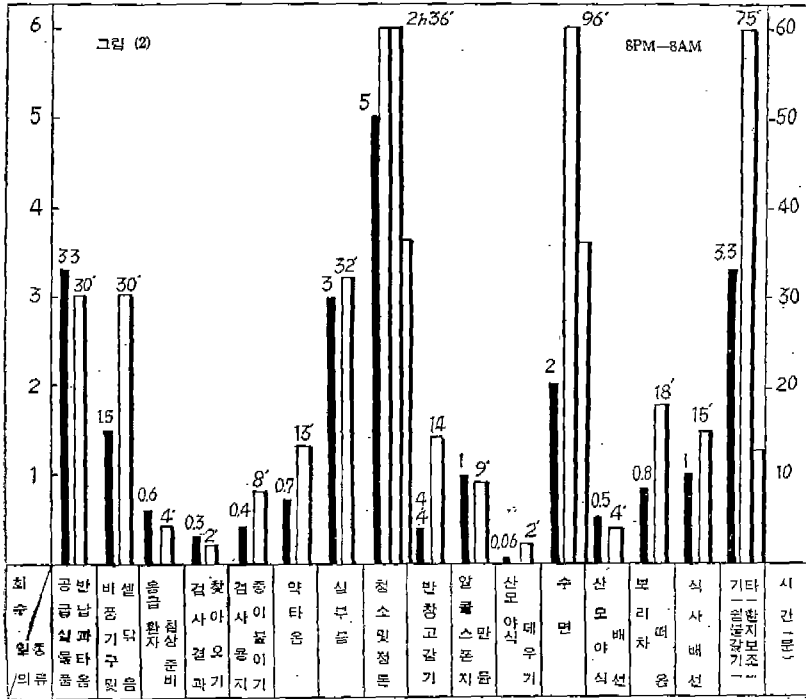
순 위	일 의 종 류	1회소요시간	%
1	청 소 및 정 돈	23	17
2	약 타 음	20	15.5
3	식 사 배 선	17	12.5
4	식 기 걸 음	17	12.5
5	보 리 차 운 반	17	12.5
6	X-ray 반납과 찾아오기	14	10
7	리넨반납과 타오기	14	10
8	기타(휴식, 환자 보호)	14	10

또 밤번의 통계는 밤에 가장 많은 근무의 모든 일이 이 16가지 중에 일 16가지 중 매시간마다 그 시간에 포함됨을 알았다. 가장 집중되는 일을 보았으며 밤번

〈표 4〉 전체일의 회수에 대한 각일의 퍼센트 <밤번 8PM~8AM까지〉

차례	일 의 종 류	%	차례	일 의 종 류	%
1	청소 및 정돈	21	9	보리차 타음	3
2	공급실 물품 반납과 타음	14	10	약 타음	2.5
3	기타(휴식 관장준비등)	14	11	응급 환자 침상준비	2.9
4	심 부 름	13	12	산모 야식 배선	2
5	수 면	8	13	반창고 감기	1.7
6	비품 기구 및 셀 닦음	6	14	검사물 용기 만들기	1.7
7	식 사 배 선	4	15	검사 결과 찾아오기	1.2
8	알콜스펀지 만들기	4	16	산모 야식 준비	1

밤번 간호보조원의 근무실태 통계표 <한과에서 일일동안 일의 횟수 시간>



전체 일의 회수에 대한 각일 시간의 퍼센트

<표 5>

<밤번 8PM~익일 8AM까지>

차례	일의 종류	%	차례	일의 종류	%
1	청소 및 정돈	31	9	반창고 감기	2.7
2	수 면	19	10	약 타움	2.5
3	기타(유식 환자보조)	14	11	알콜 스폰지 만들기	1.7
4	비품기구 및 셸 밖음	6	12	검사 용기 준비	1.5
5	식사 배선	3	13	산모 야식 배선	0.8
6	집 부 름	6	14	응급 환자 침상 준비	0.8
7	공급실 물품 반납과 타움	6	15	산모 야식 준비	0.4
8	보리차 떠움	4.2	16	검사결과 찾아오기	0.4

낮번 근무의 통계는 6일간 13과에서 한 일의 회수와 시간을 13으로 나눔으로써 한 과에서 6일간 한 일의 통계이고 밤번근무의 통계는 2시

간 간격으로 5일간 3과에서 한 일을 모두 합하여 3으로 나눔으로써 한 과에서 5일간 한 일의 평균치로 내 보았다.

일일간의 통계는 한 과에서 매시간 한 일을 모두 합하여 낮번은 6일간 했으므로 6으로 나누었고 밤번은 5일만 했으므로 5로 나누어 낮번과 밤번중 무슨 일이 집중적으로 많은가 보았다. 그 결과 일의 회수는 많으나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과 일의 회수는 적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또 청소와 같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회수도 많은 것이 있어서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지 알 수 있었다.

통계표에 나타난 매 시간의 일의

특징을 보면

낮번근무 (7AM~6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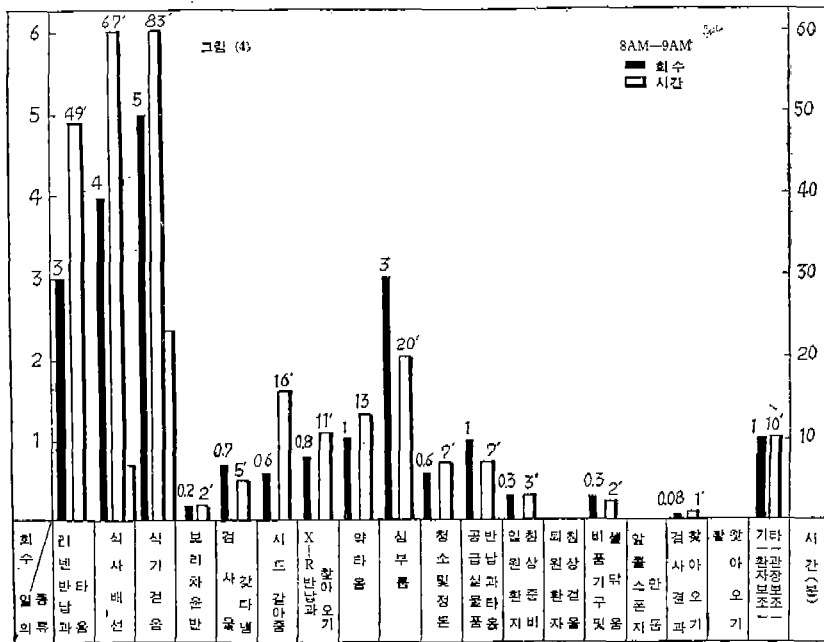
낮번 근무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1. 청소 및 정돈
2. 심부름
3. 식사배선
4. 식기결음
5. 공급실 물품교환
6. 보리차 운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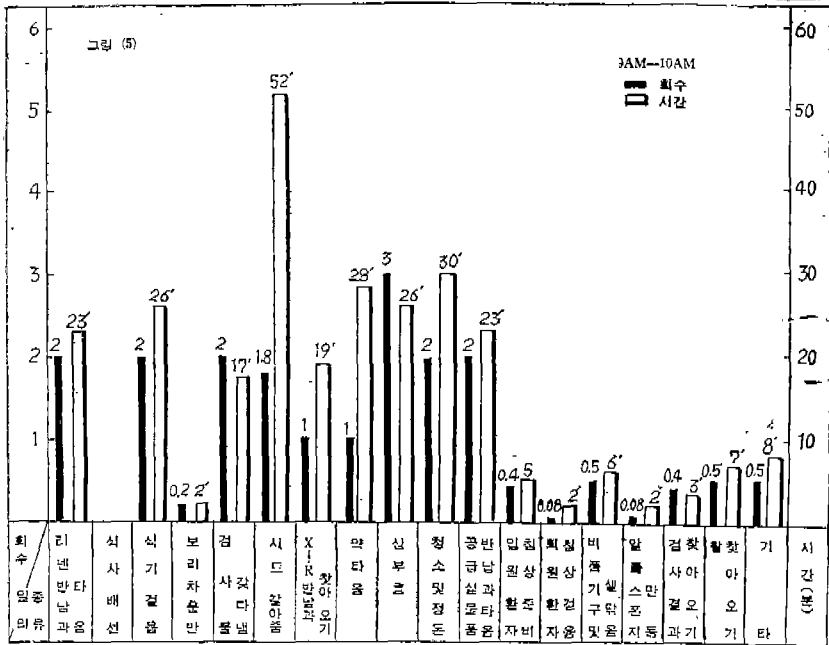
다시 시간별로 구분해 보면

<7AM~8PM> 출근하면 간호원 사무실, 처치실의 청소와 정돈, 보리차 운반, 식사배선, 심부름, 린넨반납과 타오기 등의 일이 대부분이다.

낮번 간호보조원의 근무실태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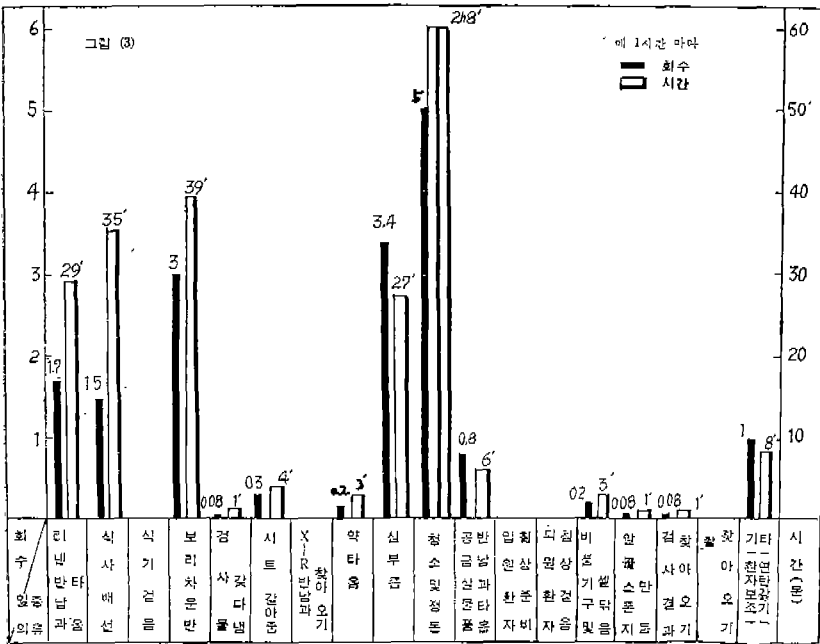


(8AM~9AM) 완전히 식사가 나오게 되므로 식사배선의 완료와 식기결음 및 린넨 반납과 타오기 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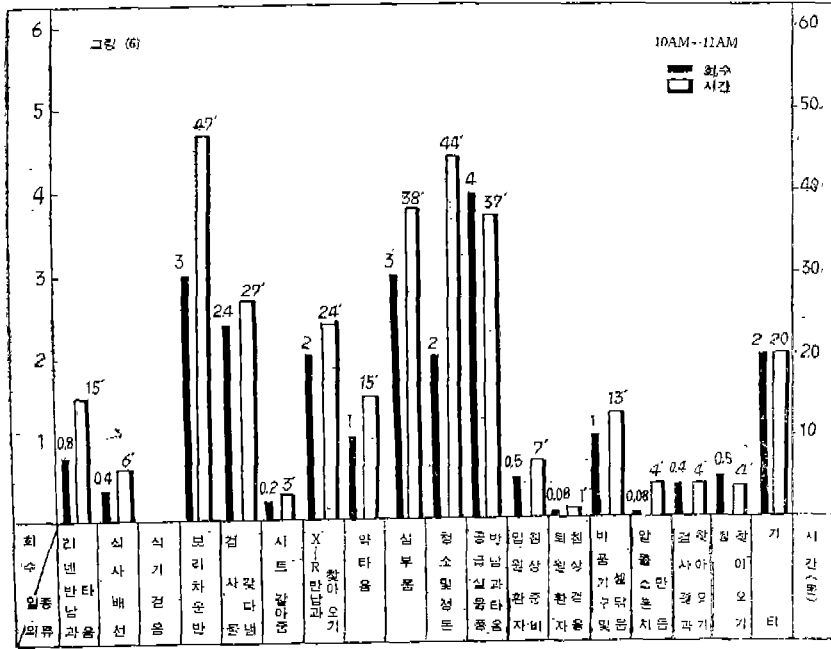
<9AM~10AM>이 시간은 일이 평균되게 분할되어 있으나 놀이불 잘 아주기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다음이 청소 및 정돈, 약타오기, 식기

결기, 심부름, 공급실 물품교환, 린넨 반납과 타오기, X-ray film 반납과 찾아오기, 검사 물 갖다 내기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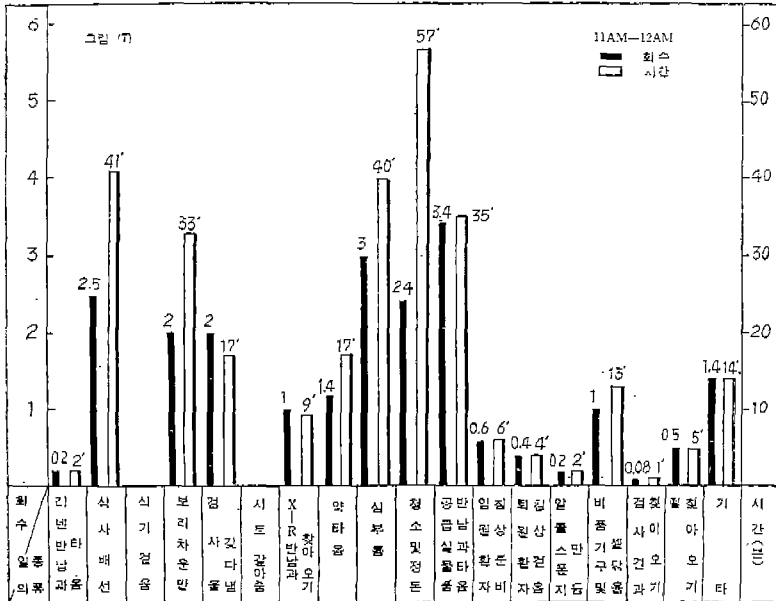
(10AM~11AM) 보리차 운반이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청소 및 정돈, 심부름, 공급실 물품교환, 검사

물 갖다내기, X-ray film 반납과 찾아오기의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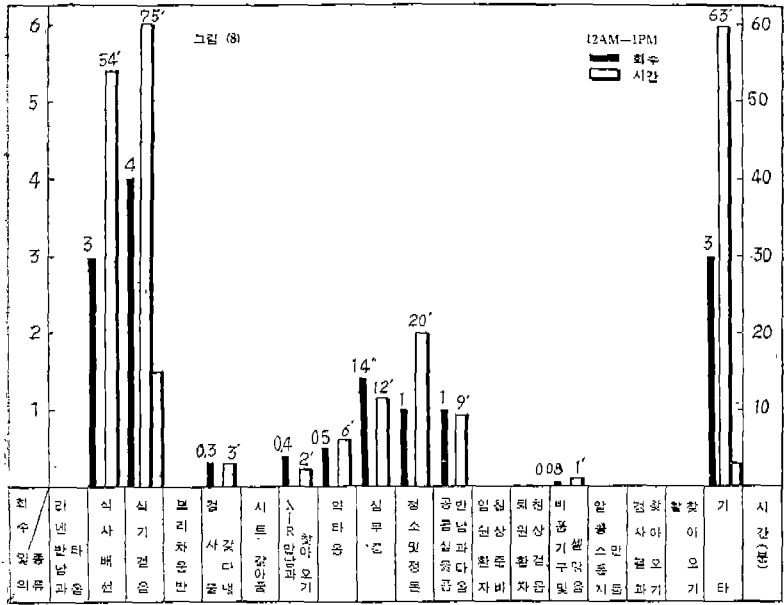


(11AM~12AM) 청소 및 정돈, 식사 배선, 심부름, 공급실 물품,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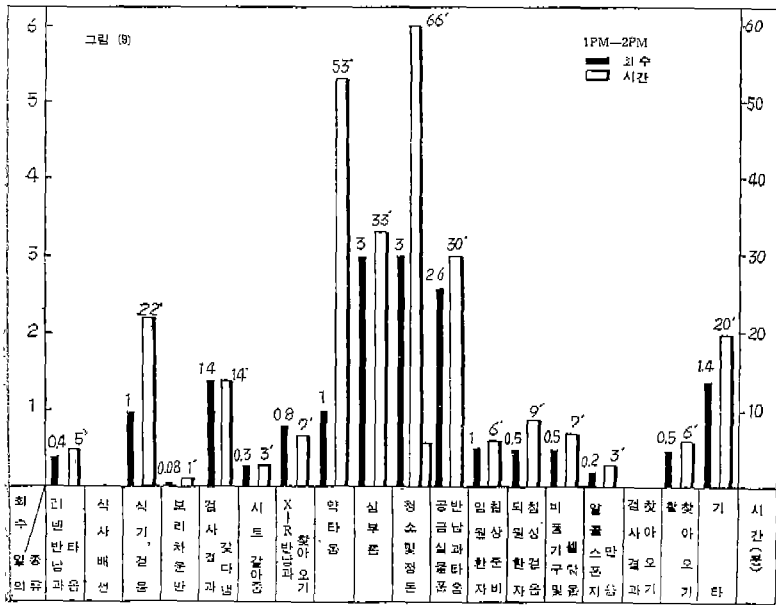
보리차 운반 등의 순이다.



(12PM~1PM) 식기걸기, 기타(자 소 및 정돈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선의 식사 시간, 포함) 식사배선,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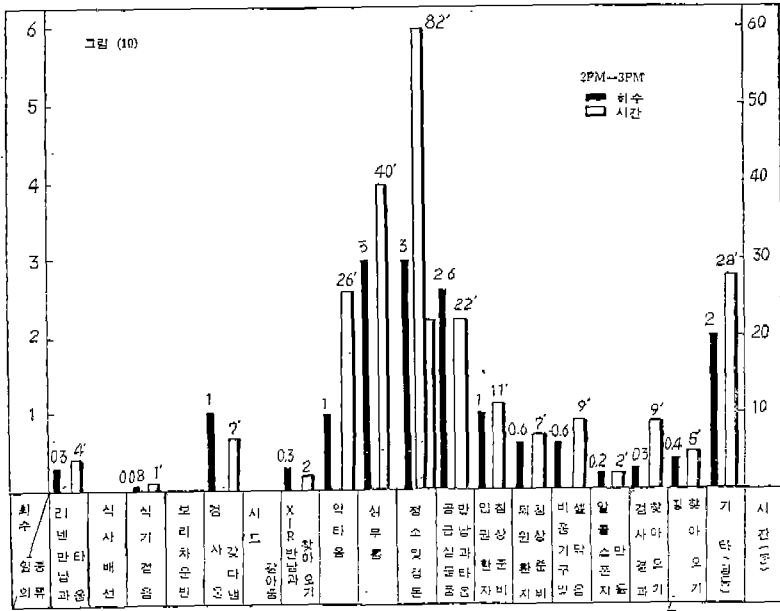


(1PM~2PM) 청소 및 정돈, 약타 뒹기, 기타(관장 및 환자보호) 등의 일들이다. 오기, 심부름, 공급실 물품교환, 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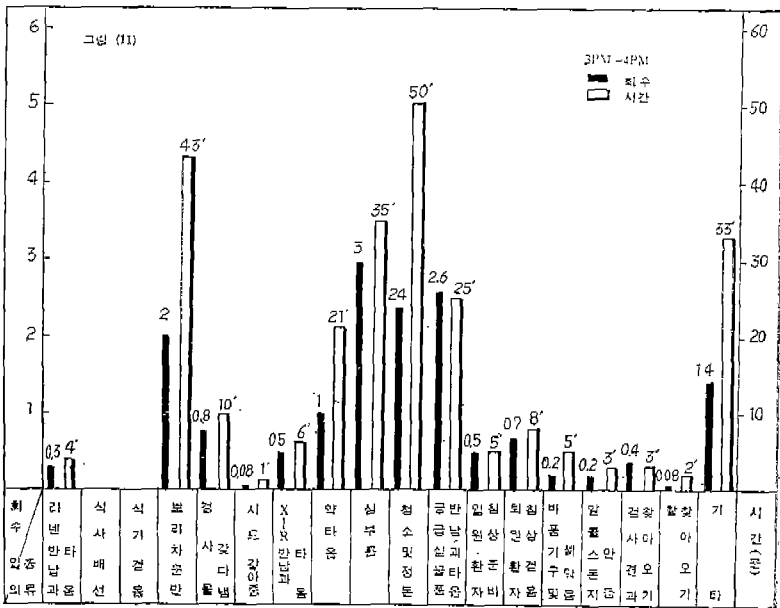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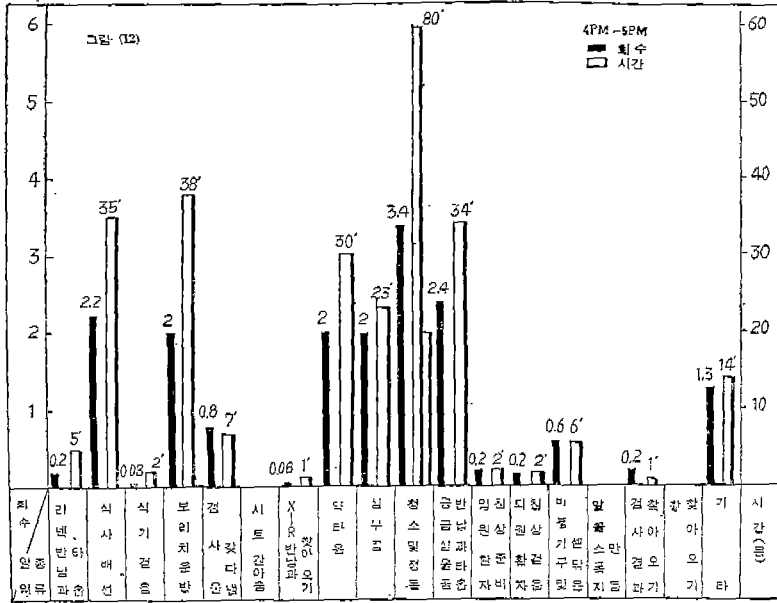
(2PM~3PM) 청소 및 정돈, 심부 타오기 등이다.  
 림, 기타(휴식 또는 환자 보호)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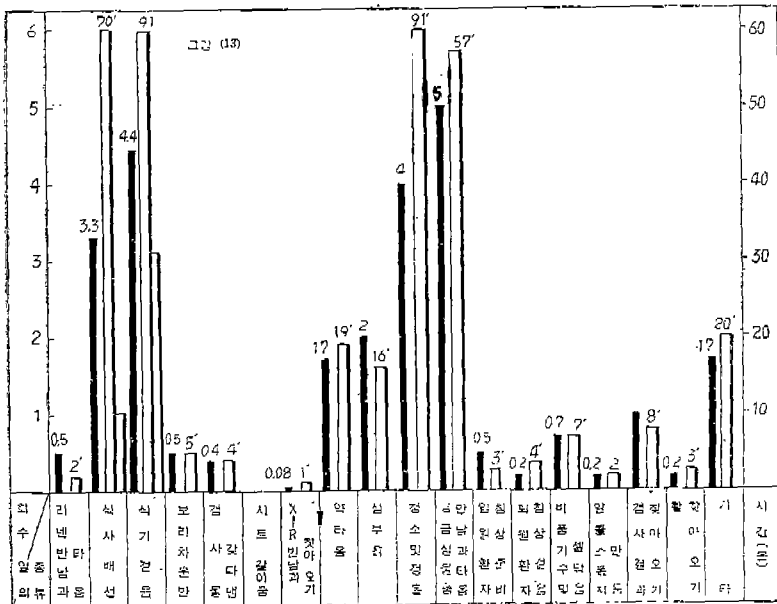
(3PM~4PM) 가장 많은 일은 청 타오기, 기타 공급실 물품교환등의 일들이  
 소 및 정돈, 보리차 운반, 심부 림, 다.



(4PM~5PM) 청소 및 정돈, 보리 환, 약국 다녀오기 등의 순으로 되어  
차운반, 식사배선, 공급실 물품교환 있다.



(5PM~6PM) 공급실 물품교환 식  
사 배선, 식기 걸음, 청소 및 정돈으  
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대부분의 과에서 낮번 근무자의 퇴근 시간은 6PM이 넘어서 하는 날이 많았다.  
 밤번근무 (8PM~8AM)

밤번근무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청소 및 정돈, 수면, 휴식, 심부름, 공급실 물품교환, 비품기구 및 셀 닦기 등이다.

밤번 근무중 일의 회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8PM~8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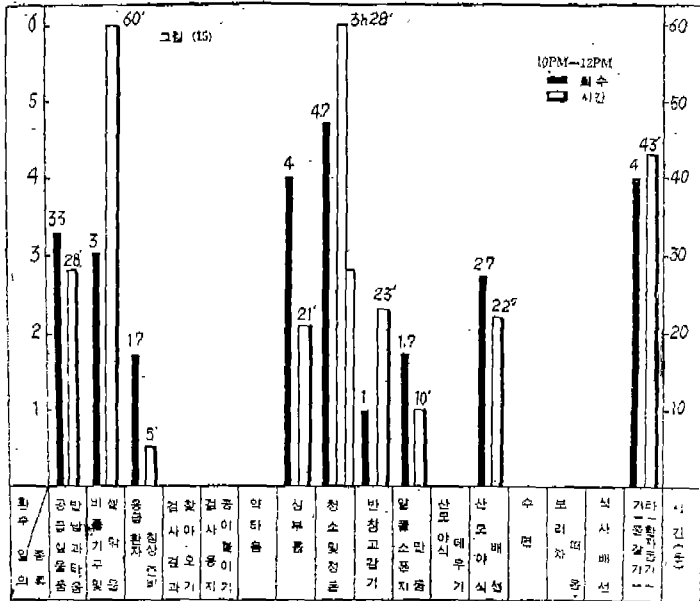
<표 6>

	일 의 종 류	회 수	시 간
1	청소 및 정돈	5	156'
2	공급실 물품 반납과 타움	3.3	30'
3	기타(셀, 환자 보조등)	3.3	73'
4	심 부 름	3	32'
5	수 면	2	96'
6	비품기구 및 셀 닦음	1.5	30'
7	식 사 배 선	1	15
8	알콜 스펀지 만들기	1	9'
9	보리차 떠움	0.8	18'
10	응급 환자 침상 준비	0.7	13'
11	약 타 움	0.6	4'
12	산모 야식 배선	0.5	4'
13	반창고 감기	0.4	14'
14	검사 용기 종이 붙이기	0.4	8'
15	검사 결과 찾아 오기	0.3	2'
16	산모 야식 배우기	0.06	2'

밤번 근무중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순으로 보면 <8PM~8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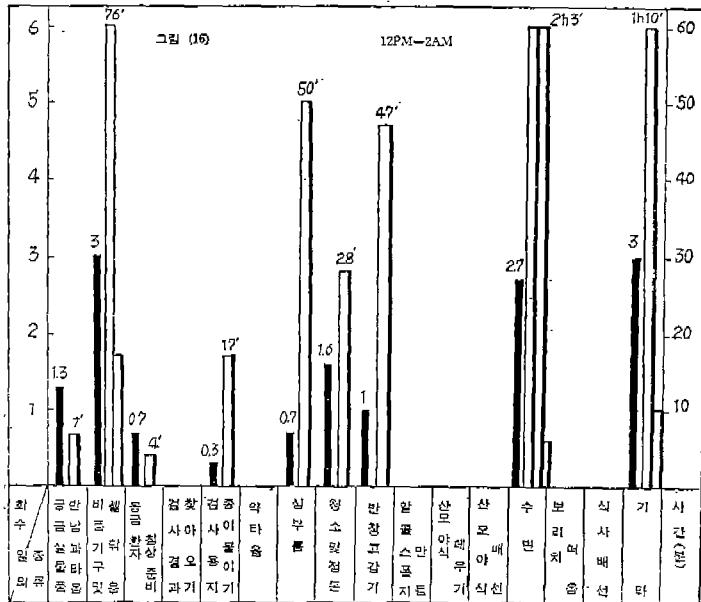
	일 의 종 류	시간		일 의 종 류	시간
1	청소 및 정돈	156'	9	반창고 감기	14'
2	수 면	96'	10	약타움	13'
3	기타(셀, 날갈기)	73'	11	알콜 스펀지 만들기	9'
4	심 부 름	32'	12	검사 용기 종이 붙이기	8'
5	비품기구 및 셀 닦음	30'	13	산모 야식 배선	4'
6	공급실 물품 반납과 타움	30'	14	응급환자 침상 준비	4'
7	보리차 떠움	18'	15	산모 야식 배우기	2'
8	식 사 배 선	15'	16	검사 결과 찾아 오기	2'





(12AM~2AM) 가장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은 수면이 2시간 3분, 휴식  
이 1시간 10분 다음이 비품기구 및 셀  
팍기가 76분, 반창고 감기가 47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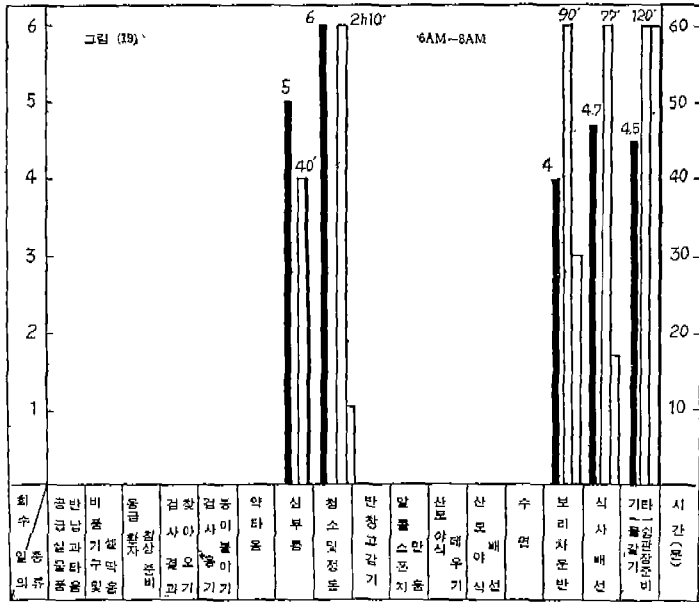
다. 이 시간에는 일보다도 수면과 휴  
식이 된다. (반창고는 다음날 처치시  
쓰기 편하게 1cm 넓이로 잘라서 감  
아두는 것이다)





(6AM~8AM) 이 시간에는 청소 및 정돈이 2시간 10분, 기타가 2시간

보리차 운반이 90분, 식사배선이 77분 등으로 아침시간을 보내게 된다.



## 건의사항

### ① 청소 및 정돈

한과실에서 1일 낮번 (7AM~6PM) 의 청소 회수가 평균 4.8회인데 여기에서 병실청소만은 0.8회로 퍼센트를 보면 전체 청소를 100%로 해서 17%에 불과했으며 병실 청소 소 비된 시간은 25분으로 1일의 전체 청소 시간 109분에 비하면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청부실에서는 주로 복도와 병실 바닥만 닦아 주므로 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시간

있는데로 병실, 창턱, 창살, 상두대 벽 복도벽 등을 조금씩이라도 매일 청소한다면 병동은 훨씬 깨끗해지 리라고 생각된다.

밤번 근무중에서는 병실청소가 일 회로 10분밖에 없었다. 밤번도 자정 에는 할 수 없지만 초저녁에는 빈방 이나 퇴원 환자의 빈침대, 상두대는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 고 간호원은 병동의 청소와 정돈에 책임은 있지만 환자간호가 더 큰 사명이므로 병실 청결은 간호보조 원에게 책임이 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시켜 매일 매일 시간있는데로 병실 하나씩이라도 청소한다면 병실

이 좀 더 깨끗할 수 있고 한결 밝아 지리라고 생각된다.

## ② 실 부 림

각과에서 심부름 회수가 가장 많은데 이것은 심부름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시킴으로써 회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될 수 있으면 심부름은 모아서 수간호원이 시키고 회수를 줄여 줌으로써 간호보조원의 피로를 감해 주면 병실 일에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외래나 약국으로 가는 심부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심부름은 자주 무계획하게 시킨다면 병실에서 응급 사태가 생겼을 때 동분서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time and motion study를 생각하여 심부름을 줄이고 이 시간을 병실 청소에 이용했으면 한다.

## ③ 보리차 운반

보리차 운반은 거의 같은 시간에 각병동에서 모두 취사에 모이게 되므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또 보리차량도 적고 steam 나오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몇번씩 가게 되며 늦게 가면 물이 없으므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연구하여 시간 낭비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

취사에서 보리차를 충분히 준비하여 어느 때에 가나 곧 가져올 수 있게 한다면가 또는 일정한 시간을

배당하여 가져가도록 하던 것중을 같다.

## ④ 공급실 물품교환

낮번 중에는 수시로 바꿔올 수 있지만 밤번중에는 새벽 일찍 공급실 물품을 전부 반납하고 바꿔오게 되는데 4시 30분 경부터 각과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므로 전에도 한번 실시한 바와 같이 일정한 시간을 배당하여 그 지정된 시간 내에 더구나 일이 시작되고 바쁜 시간에 공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병실로서는 그만큼 일이 늦어지는 것이다.

또 늦게 가던 주사기도 없어서 타올 수가 없다고 하므로 공급실에는 좀 더 물품이 많아서 어떤 시간이나 물품을 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 ⑤ X-ray film 반납과 찾아오기

이것은 9AM~10AM사이와 10AM~11AM 사이에 가장 많은데 9AM 이전에 한 사람이 전날 찍은 X-ray film을 전병동에 돌려 주고 old film을 찾아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각된다.

## ⑤ 검사 결과 찾아오기

이것도 발번 간호보조원이 찾아오는데 발번이 없는 곳에는 아침에 찾아오므로 바쁜 아침 시간에 검사 결



과를 찾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환자진료에도 그만큼 늦어지므로 전에 실시한 일이 있는 것처럼 Evening Messenger 가 찾아서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Evening Messenger 가 각병동에 돌려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⑦ 검사실에 검사물 갖다주기.

검사물은 인턴이 뽑아서 정리해 두면 검사실에서 가져가는데 간호원도 협조하여 검사물을 하나 들씩 늦게 뽑아서 수시로 검사실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응급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거리가 먼 검사실에 몇번씩 보낸다면 간호보조원도 쉽게 피로하여져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⑧ 수 면

밤번 근무시간 중에는 수면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밤이지만 근무시간이므로 공급실 위생재료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새벽 2시~4시반까지는 거의 수면 시간이 차지하게 된다.

### ⑨ 약 타오기

각과에서 약타오는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데 약국이 너무 멀어서 각 병동에서는 비상약을 넉넉히 준비하

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를 막는 것이 좋겠다.

### ⑩ 병실일지 찾아오기

병상일지 찾아오기는 외래 진찰권과는 곳에 연락하여 진찰권을 사는 경우 입원 결정이 되어 있거나 입원한 산모인 경우는 진찰권과 함께 병실로 보내 주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보호자가 진찰권만 들고 오게 되므로 산모의 입원이 수시로 많은 산과에서는 바쁜 시간에 병상일지 찾으러 몇번씩 가게 된다. 거리가 먼 외래진찰소에 몇번씩 가다 보면 바쁜 병실에서는 찾게 되고 일은 점점 비능률적이 된다.

### 개선된 점

#### ① 밤번은 간호보조원을 없애고 간호과에 messenger 1명을 두었다.

간호과 낮번 messenger 는 7:30 AM~3:30PM까지 근무하는데 간호과에 잔심부름을 하고 3:30분~7 PM까지는 내과 외래 간호보조원이 와서 도와주게 된다.

간호보조원은 3:30PM~5PM까지는 간호과에서 일을 하고 5PM~7PM까지는 검사물 결과를 각과별로 또 각 병동별로 나누어서 돌려 준다. 7PM~7:30 AM (익일)까지는 밤번 messenger 가 나와 간호과에 위치하고 각과에서 전화로 연락하면 가심부름을 해 주게 된다.

이 심부름은 약국에 다녀온다던가 식사전표 시간 보고서 돌리기, 공급실 물품 교환, suction 혹은 O<sub>2</sub> 운반조력 등 응급시 도와주게 된다.

그러므로 밤번에 하던 간호보조원의 청소는 없어지고 낮번 간호보조원이 매일 조금씩 나누어 병동을 청소하고 창턱, 창살, 병실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청소하게 되었다.

병실청부가 증앙화되었던 것이 이제는 수간호원의 승락없이 병동을 떠날 수 없으며 병원당국에서 청부를 동원할 때도 사전에 각과에서 연락이 있는 후 또 급한 사정이 아닌 한 2PM 이후에 청부를 동원하기로 되었다.

## ② 보리차 운반

보리차는 취사에서 충분한 양을 끊어서 식사배선 아저씨가 적어도 식사배선 30분~1시간 전에 배선실에 가져와 보호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분으로 큰 주전자에 갔다 두기로 되었다. 전보다는 보리차량이 많아졌으나 보호자가 많은 관계로 아직 약간 모자라지만 더운 물이고 보니 보호자들의 요구량이 지나친 것 같다. 그 결과 이 정도의 양이면 편찮다고 생각된다.

## ③ 공급실 물품교환

공급실 물품은 4AM 부터 주기 때문에 하던 일을 중지하고 병실을 비워가며 줄을 서서 순서없이 교환해

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몹시 새벽시간이 바빴었다. 그 이유는 물품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주사기 부족이 큰 원인이었다. 우선 주사기 파손과 분실수를 통제낸 후 이 부족수를 보충하여 항상 필요한 수를 준비하고 보니 물품교환이 완화 되었으며 이번에는 일층 동쪽병동은 12 PM~1:30AM까지 일층 서쪽병동은 12:30 AM~1AM, 2층 동쪽은 1AM~1:30AM 2층 서쪽 병동은 1:30 AM~2AM까지로 정하고 빨리 바꾸어 시간이 남을 때는 거리가 먼 병동(전염병동)에 전화를 연락해서 미리 교환해 가도록 해 보았더니 아주 편리하고 많은 시간이 절약되었다.

## ④ X-ray 반납과 찾아오기

X-ray실이 거리상 멀리 위치하고 있으며 old film이 없어지는 경향이 많으므로 X-ray실에서 말뚝이 많이 생겼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X-ray실과 상의해서 환자가 X-ray를 찍으러 갈 때 old film을 보내고 또 간호보조원이 약국이나 X-ray실 앞을 지나가는 심부름이 있을 때 항상 old film을 갖다주고 매일 아침 10AM~11AM에 X-ray 소견을 찾아오기로 하고 가능한 한 X-ray는 병실에 두지 않고 X-ray과 의사들과 병실의사들이 함께 X-ray실에서 보는 방향으로 하고 환자퇴원시 X-ray film을 모두 반납하지 않으면 퇴원을 못하기로 했다.

다른 것은 잘 되나 X-ray를 수술 실이나 병실에 혹은 응급실에 가져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 ⑤ 검사물 걷기와 찾아오기

검사물은 아침 8AM~9AM에 검사실에서 걷어가고 검사결과는 5PM~7PM에 간호과 messenger가 병동에 나누어 주고 응급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즉시 그 병동에 연락하기로 되었다.

### ⑥ 약국문제

약국이 외래 환자에게는 좋지만 병실에서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므로 입원실 중앙에 위치되는 곳에 병실 약국을 만들었다.

### 개선되지 않은 점

#### ① 심부름

심부름은 수간호원을 꼭 통해서 조직적으로 하기로 하면 회수가 적

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고로 또 직원이 자주 바뀌므로 제일 개선이 되지 않는다.

#### ② X-ray film 찾아오기

X-ray film은 X-ray실에 가서 보기로 하면 좋으나 자주 가져 오게 되므로 이 점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

#### ③ 병상일지 찾아오기

병상일지는 환자가 진찰 후 즉시 입원할 때는 관계 없으나 2~3일에 입원한다던가 또는 초진을 교수실에서 했다던가 했을 때는 병상일지가 정확하게 병록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입원시 간호보조원이 꼭 가져 찾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병상일지가 즉시 병록실로 가도록 해야겠다. 산모도 역시 병상일지가 병록실에 빨리 내려가지 않은 점과 응급실로 오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 산모만은 언제나 입원을 할 수 있고 간호보조원이 병상일지는 찾아 오기로 되었다.

### ◇ 외국간호원 묘지 성묘 ◇

지난 4월 5일 식목일을 겸한 한 식일을 맞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화양도에 있는 외국인묘지를 찾았다. 우리나라 간호사업의 기초를 닦아주고 우리나라 땅에 묻힌 외국인 간호원들의 묘를 찾은 임원들은 퇴색한 묘비를 가다듬고 꽃을 꽂아 살아 계실 때 모습을 기억하며 명복을 빌었다.

이날 성묘한 묘에 묻힌 고인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 ◎ Elizabeth Webster (1856~1898)
- ◎ Anna P. Jacobson (사망 1897년)
- ◎ Ella A. Lewis (1863~1927)
- ◎ Mabel Young (1883~1935)
- ◎ Edith Julia Galt (1917~1961)